



지난 1999년 6월 28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휠체어리프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사고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혜화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전동스쿠터가 휠체어리프트보다 커서 안전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자 앞으로 움직이면서 조정을 하던 중 휠체어리프트 아래로 전동스쿠터와 함께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의 경우 전동스쿠터 운전자 본인의 실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휠체어리프트의 안내판에 전동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릴 넘치는 스포츠

배응호

또한 1999년 10월 4일에는 5호선 천호역에서 휠체어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이 벽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계단으로 떨어질 뻔한 사고도 일어났다. 그런데 설치된 지 한달 밖에 안된 휠체어리프트였다고 한다.

결국 이 두 사고는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데 높은 계단과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셈이다.



투표를 하는 선거권과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권리를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장되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다. 먼저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며, 투표소로 가는 길은 물론 투표소에도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지체장애인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러 장애인단체들은 청각장애인들도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후보자의 연설과 토론 등을 알 수 있도록 자막방송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3개 방송국을 상대로 수화 및 자막방송 가처분신청을 하여 대통령선거관련 방송에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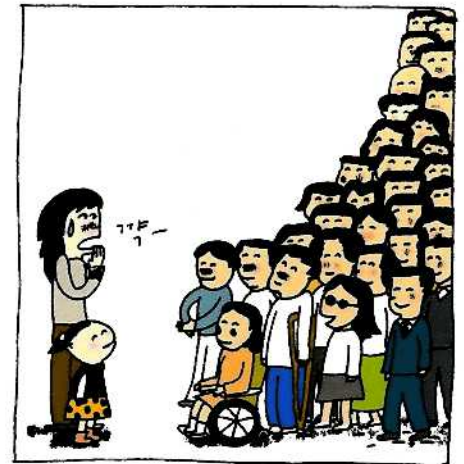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지난 2000년 4월에 있었던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기도 광주시에서 투표를 하려던 한 장애인은 2층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 때문에 투표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폭언과 야유를 했다. 장애인 국회의원, 장애인 장관이 선출되었다는 외국의 이야기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인가보다. 투표 한 번 하기도 힘드니 말이다.

배응호

1999



계획안은 새하하, 가끔 뒤도 돌아보고 새하하 -



오늘 우연히 너를
보았다

광화문 네거리 지하도 앞에서
오늘 우연히 너를 만났다
자유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무심히 지나는 사람들 속에
홀로 정지해 멈춰 선 너를 보았다

네가 거기 그대로 서 있는 사이
나는 계단을 올라
버스를 타고 일터로 향했다
하루종일
웃음 팔고 몸 팔며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세상
벗어나 자유롭고 싶다면 중얼거리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역 지하도 계단 앞에서
다시 너를 만났다
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네 뒤에 선다

계단으로 이어진 거대한 산
그 위를 오르는 사람들의 무심한 발길에
너는 무참히 짓밟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
그 길 위에 서서
너,
나는
오래도록 말이 없다

사람들의 도시 위로
적막한 여동이 내리고
저들이 내다버린 뒹아빠진 자유,
그 사이를 표류하는 너를
오늘 또 우연히 보았다

엄마! 비벼줘~

장차현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생일인 것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가련한 존재감에 시달린다. 세상에 나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겨우겨우 생각해 내며, 우울한 기억들을 눌러 버리려고 애쓴다.

그야말로 왜 태어났니...

어릴 적엔 엄마가 “오늘은 니 생일이다” 하시며 끓여 주시는 미역국으로 즐거운 생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내가 삶을 주도하고, 또한 내 아이의 삶도 챙겨야 할 때가 되었기에 이젠 누군가 나를 챙겨주기보다는 내가 챙

기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졌다. 시집오면서 엄마도 챙겨올 순 없었을까? 난 이제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것처럼 어떤 특별한 아이의 엄마이다. 내가 엄마가 된 지는 9년이나 되었지만 매번 새롭고 다양한 엄마의 얼굴로 달라져 간다.

은혜는 은혜 자신도 특별한 아이이고, 내 자신에게도 특별한 아이이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은혜가 태어났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결혼 전 젊음이란 투명성이 오히려 견디기 어려웠고, 무엇 하나 뚜렷한 목적의식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다.

은혜가 장애가 있는 아이로 태어나고, 난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웠다.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로서 나는 더욱 부지런해야 했고, 정보력도 좋아야 했다. 일도 잘해 돈을 벌 수 있어야 했고, 더욱 침착해야 했으며,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가슴도 필요했다. 나의 아이가 장애가 있음을 받아들이기엔 이전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는 힘들었다.



은혜가 비장애인들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되도록 장애아보다 비장애아들 속에 어울리도록 놓아 두었다. 그러나 과부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비슷한 처지를 안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잘 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속이 후련한 느낌도 들었다. 어쩐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손 잡고 아침의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헤어져야 할 것 같은 친밀감과 우정이 순식간에 생긴다.

우리 은혜를 아껴 주시던 선생님이자 나와 같이 30대 중반의 삶을 살아가는 전정옥 선생님 내외분을 만나게 된 것도 은혜가 5살 되던 때였다. 두 분의 개척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며 많이 감동했고, 두 분의 주선과 배려로 난 더 많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 1년 남짓 우리 은혜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계시다 지금은 편의연대를 하시게 되어 자주 뵙지 못해도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끝없는 수다에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르게 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만화를 처음 그리게 된 것은 94년 다운증후군 관련 단체 소식지에 '은혜의 하루'라는 육아만화를 그린 것이 동기였다. 그간 신문이나 잡지에 삽화를 그리던 것이 도움이 되어 짧은 스토리만화를 그리게 된 것이다. 내용은 장애아를 둔 엄마가 아이를 키우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교육에 관한 것이었는데,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짜증스럽고 한숨섞인 우울과 슬픔을 만화를 통해 깨뜨려 주고 싶었다.

만화를 통해, 장애아를 키우는 것은 때론 우습고 비장애아를 잘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은 무게감이라고 떠들고 싶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리저리하게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 요즘엔 날 처음 소개할 때조차 만화가 ○○○라고 할 때가 종종 있다.

요즘 장애인복지신문에 '세상속의 현실'이라는 타이틀로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만평을 게재하고 있다. 전정옥 선생님이 장애인복지신문에 만평을 그려 줄 수 있겠느냐고 해서 흔쾌히 "그러지요"라고 대답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만평을 그리면서 전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건 자만심이 아니라 그러저러한 모든 사연이 내가 너무도 잘 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별 이변이 없는 한 이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매주: 비벼줘 / 계란 흰자를 반백만 난계산
+ 간장 1숟가락 + 초밥용 식빵
+ 따뜻한 밥.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어수선하고 바쁜 아침이다. 은혜가 좋아하는 아침식사인 "비벼 줘"를 준비해 주고, 난 나대로 일할 것을 챙겨 외출준비를 한다.

은혜는 학교에서 나는 일터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녀는 열심히 산다. 가끔 교실을 훑쳐보다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수업진도를 못따라가(특히 수학시간) 멍하니 앉아 있는 은혜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기운이 빠진다. 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고, 많은 과제와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느낄 때 마음속으로 크게 외친다.

"벌써 처지면 안된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수원 사는 게 행복하다

영숙이랑 팔달산에 갔다.
오래 전부터 영숙이가 조른 일이다. 같이 산에 가자고.
수술 후 먼거리 보행은 너무 다리에 무리가 가는 일이라 산행은 자꾸 꺼려졌었다.
헌데 오늘은 웬지 영숙의 성화에 순순히 응했다.
이유는 나도 모른다. 익숙한 동네 길을 따라 팔달산을 향했다.
산책로 초입 경기도청 입구에 라이브 카페가 하나 들어서 있었다.
모양은 괜찮은데 출연한다는 가수들이 좀 시원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날씨 선선해지면 저녁 무렵 언제 한 번 들러볼란다.
화서문까지 산책로를 쭉 걸었다.
다리에 무리가 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왔는데 좀더 걸어 보자 하고 화서문 언덕배기를 용기내어 넘었다.
산책이 다른 운동보다 좋은 이유 중의 하나는 동행과 더불어 이런 저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숙과 심심찮게 얘기하며 걸었다.
그러는 사이 선경도서관을 지나고 팔달약수터 가까이 이르렀다.
못보던 카페같은 건물이 보였다.
그 지린 원래 공원 화장실 자리였는데, 화장실 건물이 맞았다.
너무나 깨끗한. 양편에 남녀 화장실이 있고 가운데 또 하나의 커다란 화장실이.
여닫이는 버튼식이었다.

열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안에서 닫힘을 누르면 또 자동으로 닫히고.
영숙에게 밖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 보라고 했다. 안 열렸다.
신도림역 장애인용 화장실엔 아무런 잠금장치가 없었는데, 얼마나 황당했던가.
수도꼭지에는 밸브가 없었다. 손만 갔다 대면 물이 나왔다.
2년 전 수술 후 손에 아무런 감각도 없고 힘도 없을 때
정말 작업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방문 손잡이 돌리는 것과 수도꼭지 밸브 여닫는 거였다.
화장실 내부는 너무나 청결했다. 그리고 정말 넓었다.
휠체어가 들어가 자유로이 움직일 공간이 나왔다.
밖으로 나가 보도 턱을 살폈다.
당근 낮춰져 있었고 휠체어가 충분히 올라갈 만했다.
영숙과 다시 산보를 하다가 너무나 좋아서 한 번 더 뒤돌아 보았다.
이 화장실이 지닌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찾았다.
지붕엔 태양열 집열판이 있었다. 친환경!
다음엔 사진기를 가져 가려고 한다. 이쁘게 오묘조묘 찍어서 여기저기 알리려나.
수원 사는 게 행복하다.

전정식 (nutland@5425.com)



편의연대에서 만든 병따개



다
2리자 나
2자



대비 對比

장차현실

모임에 갔었다. 장소는 종로 5가였다. 거기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이 몇 분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에 모두들 번잡한 거리로 나왔다. 휠체어가 여러 대 있었기에 우리의 기동성은 늦기 마련. 사람들이 많은 번잡한 거리, 사람들은 왜 그리 바쁜지, 휠체어가 걸리적거린다는 듯이 획-획 지나간다.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괜시리 장애인들에게 미안한 기분이 든다.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획획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너무나 다른 속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런지. 자신감에 차 있고 당돌하기도 한 젊음, 때론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한 그들의 이기심도 본다. 세상에 자유롭게 나서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그 둘을 대비시켜 보았다. 그 젊음도 장애인의 삶을, 장애인 자신도 다른 사람의 삶을 받아들여 보는 것은 어떨런지...

나는 지금 바다로 간다

나는 지금 바다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텅 빈 도시를
홀로 지키던 날들이 있었지.
작은 골방에 누워 저들의 여름을
바라만 보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나는 지금 바다로 가고 있다.

나, 바다 속 세상을 본 적이 있지.
수초와 모래, 돌들이 고만고만하게 얽히어 있고
수많은 물고기떼 아름다운 비늘을 자랑하듯 유영하는,
그곳에선 또 다른 한 세상이 열리곤 했어.
나, 바다 위 세상을 본 적이 있지.
하늘을 이고 흐르는 바다
그 위로 점점이 섬들이 박히어 있고
작은 어선 한 척, 서넛의 어부들을 싣고 떠다니기도 하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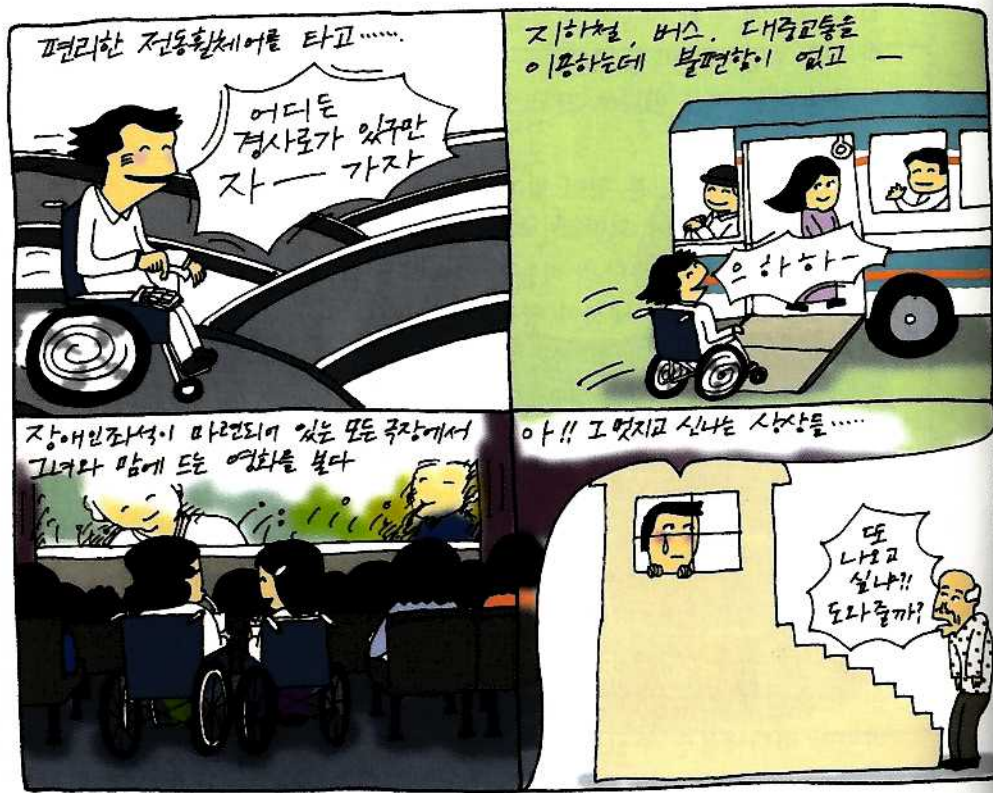
하지만 나, 물 속에 발 담그진 못했어.
물 위로 고개 내밀어 하늘을 삼켜보지도 못했지.
눈 감으면 떠오르던 바다, 솟구치던 하늘
눈 뜨면 서늘한 바람만 불어대고
비릿한 바다내음만 주위를 맴돌곤 했어.

하지만
나는 지금 바다로 가고 있다.
내 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던 바다
나는 지금 바다로 간다.

박인희



더운 여름 특별한 휴가를 계획하여 보셨어요



신나는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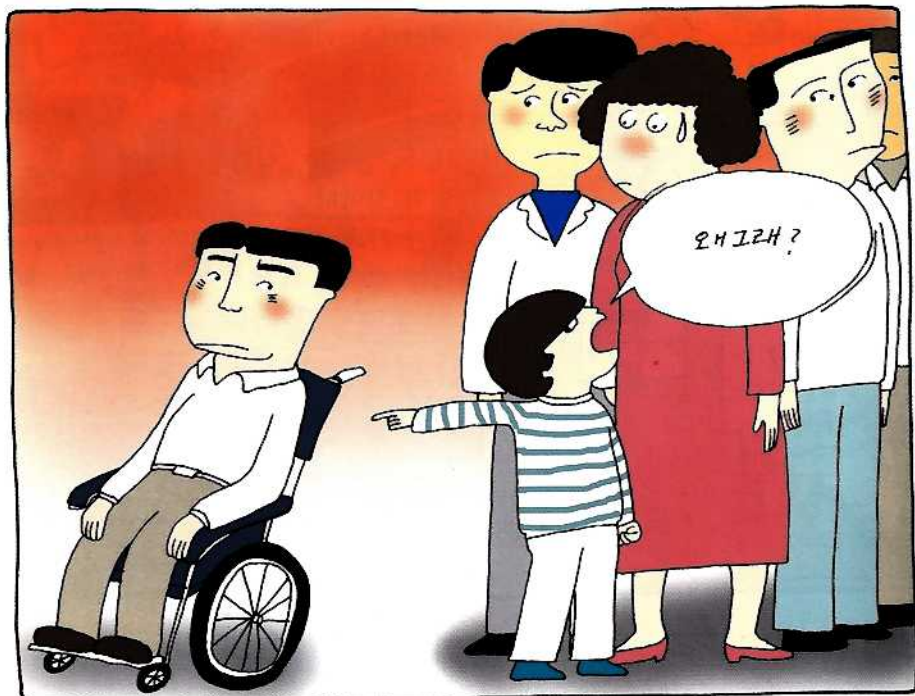
전동휠체어는 무상으로 지금이 되고
길거리의 턱은 낮다.
모든 지하철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에는 리프트가 있다.
더 이상 겁날 게 없다.

1평도 안 되는 킁킁한 골방에서
벌떡 일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나, 혼자서 간다~!

나는 더 이상 장벽을 느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장애를 느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다.
나는 그저 000이다.

하지만 2000년 서울의 거리에서
난, 중증장애인이다.

전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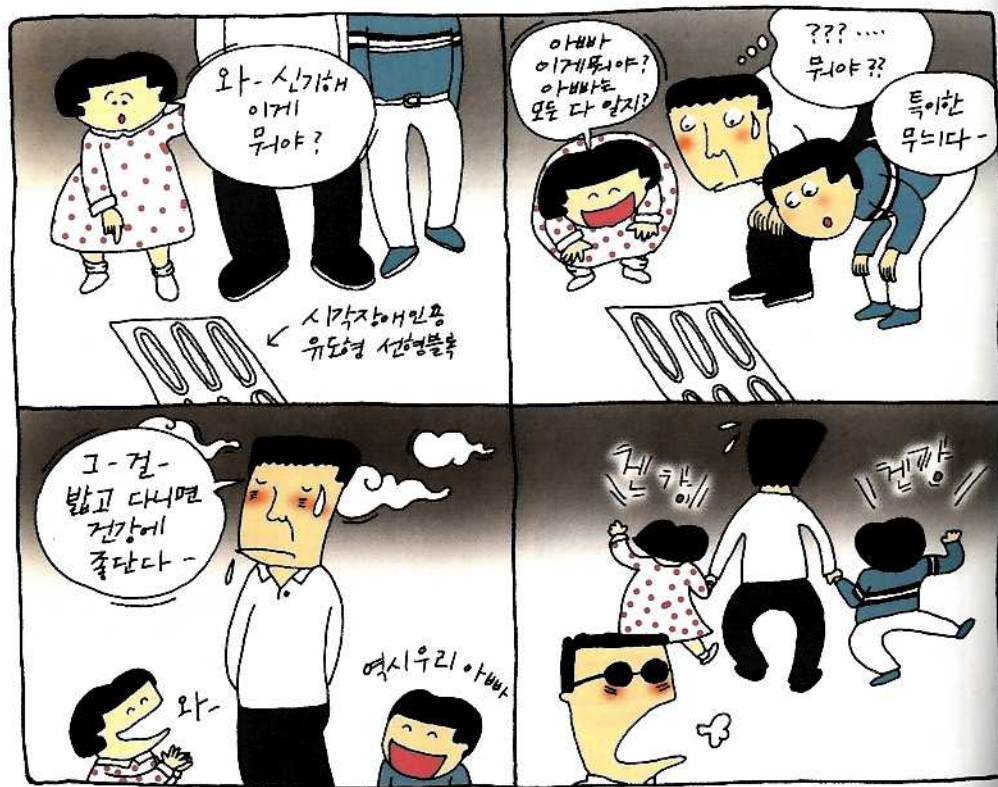


편견없이 잘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남편은 장애인이다.
 그것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기 전에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다.
 길거리를 나서면, 아니 아파트 문밖만 나서도
 수많은 질문과 눈초리에 맞서야 한다.
 “왜 다리가 없어요?”
 “왜 못 걸어요?”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순진하다.
 옆에 서 있는 부모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나를 당황케 한다.

“너도 엄마 말 안 들으면 저 아저씨처럼 돼!”

전정옥



1호선 녹천역에는 높고 높은 계단 밖에 없다. 표를 사기 위해 높은 계단을 오르고 난 뒤 다시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계단만큼 내려가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기 위해 전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멀고 후미진 녹천역 남부역사를 두고 새로 북부역사를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래, 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니까 녹천역에도...”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승강기를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북부역사가 개통이 되고 난 뒤 만들어진 편의시설은 승강기가 아니라 리프트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그것이 전부였다. 남의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계단보다는 리프트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용을 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리프트는 설치가 되었는데 역무원이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열쇠를 어디에 놓았는지 몰라 30여분을 찾아 헤매고, 그것까지도 관찮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뭘~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역무원은 열쇠를 찾아 헤매고 작동하는 법을 몰랐다. 게다가 “아저씨! 리프트에 열쇠가 안 달려 있는데요?” 라는 이야기에 “잉? #&%? 벽에 붙어 있는거?”

휠체어리프트는 “벽에 붙어 있어서 장애인 나르는 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바닥에 울록볼록 붙어 있는 거...?”

최소한 편의시설에 대한 용어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사용합시다.

전정옥



우리집 거실의 한쪽 벽에 이 만화를 크게 확대해서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 예전에 은혜의 선생님이셨고 그후로 우리 모녀와 인연이 깊으신 편의연대 전정옥 선생님(사람들은 사무국장님이라 부르지만 우리에게겐 선생님이다-한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러던가?)이 내가 그린 이 만화를 액자로 만들어 선물해 주셨다.

자 신 감



요즘엔 별로 보진 못했지만 예전에 거실이나 안방에 크고 멋드러진 글씨로 '정직하게 살자' 라던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이라고 쓰여진 글귀를 볼 수 있었다. '자신감'은 우리집의 가훈과도 같은 것이다. 나의 딸 은혜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속에서 자신있게 살아가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다. 때론 어처구니없어 보이기도 하는 우리 모녀의 공주병이 살아가는데는 큰 힘이 될 때도 있다(못말리는 '무대포' 정신이다. 후후).

장차현실



우리 교회 나의 자리

우리 교회에는 다른 의자들보다 길이가 조금 짧은 의자가 하나 있다.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 있는 서른 개 정도의 긴 의자 가운데 하나가 4분의 1 정도 짧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다.

그 의자가 지금처럼 길이가 짧아지기 전에는 나도 여느 장애인처럼 맨 뒤의, 의자가 없는 곳에서 가족들과 동떨어져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이런 내가 안타까워서였을까? 어느날 교회에서 나를 보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매주 혼자서 예배를 드리니 어쩌면 좋으니? 현주 자리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하셨다.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났을까?

어느 날 교회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있는데, 가르쳐 주시는 권사님께서 “현주야, 예배실에 네 자리가 있더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의자를 잘라냈다고 하셨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실에 들어갔더니 맨 뒤에 다른 의자 길이의 4분의 3 정도 되는 의자가 하나 있었다. 그렇다. 바로 없어진 4분의 1이 내 자리다.

보통 장애인 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의자 하나 전체를 옮겨 버린다. 그런데 4분의 1을 자른 것이 신선하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이제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가족들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좋다.

이현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화장실보다 좀더 넓게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 화장실보다 문도 넓고 공간도 넓으면 뚱뚱한 사람도 이용하기 편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은 짐을 든 사람도 편하다. 이것이 장애인 겸용화장실이다.



별도로 설치된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이용하는 장애인이 적기 때문에 지저분한 청소도구로 꽉 차 있거나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장소로 이용되기 쉽다. 또는 청소부 아줌마들의 휴식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킨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소수만을 위한 특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문이 닫혀져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전용화장실보다는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이 필요하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장애인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가족을 위한 화장실이 더욱 절실하다.



보편적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뚱뚱한 사람을 위한 넓은 문, 휠체어 탄 장애인, 유모차 끄는 엄마,
 힘이 약한 노인들, 목거울 짐을 나르는 사람.....
 누구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아는가?

이제 디자인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옷, 가전제품, 인테리어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의 모든 부분에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다. 디자인은 아름다움은 물론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특히 주택과 건축물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전하며, 편리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좋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보편적 디자인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부터 몸이 아픈 사람에 이르기까지, 비장애인에서부터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건물의 출입문을 만들 때, 기존의 디자인은 멋진 계단을 만들고, 그 옆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따로 만들었다. 하지만 보편적 디자인은 계단이나 턱이 전혀 없고, 넓은 하나의 출입문을 만든다. 계단이나 턱이 없고 문이 넓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보편적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새해에는 풍성한 삶
이 우리를 맞이하리
라는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으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볼 때마다
몸도 약한 늙이 돈도 안되는 일에
뛰 나온다고 밤늦게 다니나고
걱정을 하신다.

강남 사람들은 이름도 잘 모르는
도봉구 창동에서부터
나의 에마 빨간 프라이드를 몰고
아침마다 막히는 서울거리를 지나
서대문의 편의모임 사무실에 도착하는데는
무려 1시간이나 걸린다.

어느새 등에선 진땀이 흐르고
어제 먹은 저녁은 다 어디로 갔는지 허기도 지지만
오늘 하루 또 만나야 할 좋은 사람들,
오늘 하루 해야 할 꼭 필요한 일들,
그 무엇보다도 오늘도 함께 할 아내를 떠올리면서
나의 하루는 신나기만 하다.

사무실에 가면 어느새 출근한
얼마 전 결혼한 새색시 박지영 간사가
청소를 하고 있고,
난방은 비록 시원찮아도 우리를 따뜻하게 덥혀 주는
간이 전기난로를 앞에 두고 이렇게 셋이서 오붓이 앉아
하루의 일과를 논의하다 보면
그래, 오늘도 잘 될거야
다짐하게 된다.

벌써 5개월째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무장에도시라는 어려운 주제와 씨름을 하며
실태조사도 하고
지도도 그리고
발표도 하고
그보다 더 많이 함께 밥을 먹고
그러다 이제는 오랜 친구처럼 친해진
용분이, 현순이, 해원이와 미경이.

아버지에게 1999

배용호

월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출다고 모자쓰고 목도리까지 두르고
그래도 모자라 꺾충 걸음을 걷는 은영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할 때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발랄한 지연이,
노란색 오토바이를 몰며
은행업무를 도와주고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것 같은
정옥씨의 제자 민오,
목발을 짚고 설 때면 내 앞에서 키자랑 하듯
품을 채고 서고 그러다 놀리면 얼굴이 빨개져
말을 못잇는 민성이,
금요일이면 스포츠신문에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여는 손승한씨,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한 달은 왜 그리도 빨리 돌아오는지
어느새 소식지를 만들 날짜가 되고
사무실이 좁아져 책상도 없어져 버린 내 앞으로
국장이 정성껏(?) 적어 보낸 기획안이 내려오고
그때부터는 마치 커다란 잡지사의 마감일인양
잠이 든 아내 머리맡에 앉아 밤새 원고를 쓰고
다음 날 하루 웬종일
모자란 실력을 동원하여 편집을 하고
그렇게 겨우 인쇄소에 넘기면
그제야 떠오르는 실수 한뫼음.
그래도 소식지를 받아보고 보내오는
감사의 전화, 필요한 물품 등을 볼 때면
아, 이 초라한 소식지에 보내 주는 관심에 코끝이 찡해진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또 한달이 시작되어도 주머니는 여전히 가볍고
체력도 갈수록 모자란 듯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아버지, 당신도 이 일을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저만큼.

질서

이른 아침, 약수터에서

이상록

1

이른 아침, 새벽공기를 가르며
산으로 산으로 향하는 물통들의 행렬
도시에 찌든 사람들의 자기 정화의 시간
그 시간에 달려가는 물통들의 크기는
버려야 할 자신의 삶의 무게에 비례하는 걸까?

2

자기 목 풀어낼 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받으려 한다면
물통이 크다고 해서 먼저가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가 아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먼저가 아니다
더구나, 먼저 왔다고 해서도 먼저가 아니다
적어도 이른 아침 약수터에서는
목마른 사람의 한 모금이 먼저이지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다

3

이른 아침, 약수터의 이 거룩한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선 왜 그리 어색할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워내지 못한
자기 밥보다 큰 밥통들을 하나씩 달고 다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흔히 찾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일까?

4

밥이
물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나눠지는
이 거룩한 질서

엘리베이터에 오르면서

전 아파트에 자주 걸어 올라갑니다. 요즘 지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높은 보도블럭 턱을 제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이지요. 그런데도 아직 저는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지 못함을 봅니다.

많은 경우, 아파트 측에서는 에너지 절약 또는 어떤 이유에서 2, 3층은 정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두 개 있을 경우, 짝 홀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방식이 장애인에게 너무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2, 3층에 사는 경우, 또는 장애인이 2, 3층에 갈려고 하는 경우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짝홀로 운영하게 되면, 10층에 있는 그가 13층에 갈려고 하면 1층으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만 합니다. 너무나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 등에서 운동을 벌였으면 합니다. 엘리베이터 운용에 대해 2,3층을 정상 운영 하되, 건강한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기 운동을 해야지 아예 정지를 시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연대에서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잠시 저의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김용섭 (kjoshep@hanmail.net)

인간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인간답게!!

독립적으로!

지나가는 이웃이나 행인의 도움을 빌려야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편의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물에 들어가고 교통수단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편의시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건물에 들어가고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답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고통을 겪어야 하고,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남의 등에 업혀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도 자신의 휠체어를 타고 당당하게 건물에 들어가고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편의시설 만화로 보기

초판인쇄 / 2000년 9월 15일

초판발행 / 2000년 9월 20일

그림 / 장차현실

엮은이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펴낸이 / 이계준

펴낸곳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306호

tel. 02-765-6835

fax. 02-765-1385

e-mail : accessk@nownuri.net

<http://www.accessact.org>

디자인 및 제작 / 출판기획 명작

※ 비매품

더 넓고 더 가까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www.accessact.org

편의연대는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알림으로써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합니다.

- 편의시설 고발전화 :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또는 관리가 안돼 불편하십니까? 그럼 02-765-6835로 전화하십시오. 현장조사와 민원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촉구합니다.
- 편의시설 실태조사
- 더 넓고 더 가까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
- 편의시설 관련 정책 제안
- 편의시설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편의연대는 편의시설 관련 책자를 발간하여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월간 <자유공간> 발행 : 편의시설과 관련된 건축, 교통, 조경, 레저에 관한 이론과 정보 그리고 편의연대의 활동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매월 10일에 <자유공간>을 발행합니다.
- 단행본 「편의시설 다시 보기」
- 「너와 함께 도시탐험을 떠나고 싶다」
- 「편의시설 및 편의증진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 인식조사」
- 「지하철 이제는 서비스다」
- 「60분만에 끝내는 편의증진법」(CD-ROM)
- 「편의시설 만화로 보기」

편의연대는 청소년,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의 참 의미를 알립니다.

- 청소년편의시설아카데미 : 매년 여름 중,고등학생과 함께 하는 아카데미 캠프는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서 편의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 편의시설 시민대학
- 편의시설 전문아카데미